

광장의 젠더와 혁명의 성정치* -1996-2016, 혁명의 기록과 기억'들

소영현*

1. 기억과 역사: '덜 삼킨 덩어리처럼 목구멍 어디엔가 남아 있는'
2. 가상 공동체 시대의 세대기억: '우리가 뭘 잘못된 걸까?'
3. 성정치 시대의 삭제된 기억들: '무엇이 그대로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4. 광장의 젠더, 촛불과 페미니즘의 시간 사이로: '오늘은 어떻게 기억될까'
5. 결론을 대신하여: 기억의 현재화와 혁명 주체의 젠더적 재편

국문초록

주변부적 관점에서 그리고 젠더적 관점에서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 질문을 두고 본고에서는 한국문학에 나타난 1996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혁명의 기록과 기록이 누락한 기억들을 검토하였다. 1996년의 학생운동에 대한 낯선 회상이 이루어지는 소설들, 윤이형의 『큰 늑대 파랑』(『큰 늑대 파랑』, 2011), 최은영의 『뭉』(2018),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2019)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비가시화되었거나 젠더적으로 배제되었던 존재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복원해보고자 하였다. 주변부적 위상에 대한 인식과 '기억될 수 없는' 혁명에 대한 호명의 상관성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상상과 체제 재편의 열망을 나누는 혁명의 한복판을 '함께' 통과할 때에

* 이 논문은 2017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8712).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도, 혁명이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혁명의 순간에도 여전히 배제와 위계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1996년 ‘연세대 사건’의 역사적 복원과 계보화 작업이 단지 학생운동에 대한 재고에서 나아가 1990년대 한국사회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 혁명, 성정치, 기억, 기록, 젠더, 윤이형, 최은영, 황정은)

나는 재수를 거쳐 96학번이었고 서수경은 95학번이었다. 우리는 각각
서총련(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동총련(서울동부지구총학생회연합)과
경인총련(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인부총련(인천부천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으로 1996년 8월의 며칠을
연세대학교 종합관에서 보냈다. 캠퍼스를 둘러싼 호위를 뚫고
탈출하려다가 전투경찰들에게 쫓겨 들어간 종합관에서 스스로
바리케이드를 쌓은 채 고립되고 만 것이다. 며칠에 불과했지만 그 며칠의
인상은 1996년 전체의 인상이 되었다. 누군가 ‘96년’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를 돌아본다. 그 뒤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적지 않은 사건이
있었지만 1996년은 덜 삼킨 덩어리처럼 목구멍 어디엔가 남아 있다.
오감이 다 동원된 물리적 기억으로
- 황정은, 『디디의 우산』 중에서

1. 기억과 역사: ‘덜 삼킨 덩어리처럼 목구멍 어디엔가 남아 있는’

좀비들의 급작스러운 공격으로 시작되는 윤이형의 소설 『큰 늑대 파

랑』¹⁾의 소설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 종말론적 상상력이다. 『큰 늑대 파랑』은 2006년 10월 어느 일요일 정오 무렵, 이상 바이러스 때문으로 추정되는 좀비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한 서울 풍경을 그린다. 지나온 10여 년 동안 같은 꿈을 꾸다고 믿었던 친구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세계의 종말과 죽음 혹은 피할 수 없는 감염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장면을 차례로 추적하면서, 『큰 늑대 파랑』은 구원의 여지없는 죽음 혹은 치명적인 감염 앞에서 1990년대 대학가 학생운동의 풍경을 불러온다. 그 시공간의 어딘가에서 세계의 종말이 시작되기라도 했다는 듯이. 특별한 의무감 없이 그저 스쳐지나갔을 뿐인 학생운동의 시위 풍경이 세계의 종말을 맞이한 순간 느닷없이 기억의 전면에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나온 10여 년의 삶은 왜 그들을 무심결에 지나쳤던 그 시공간으로 되돌리는가.

흥미롭게도 1990년대 중후반, 1996년 봄에서 여름에 이르는 시기, 아니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으로도 꼽힐 수 있는 1990년대 대학가 학생운동에 대한 회상은 『큰 늑대 파랑』만의 것이 아니다. 혁명의 기억이 배제한 것들을 환기하고 혁명의 기록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황정은의 소설 『디디의 우산』(2019)에서 2016년 촛불광장과 2017년 정권교체로 이어진 혁명의 시간은 1996년 8월의 ‘연세대 사건’에 대한 기억 위에서 서술된다. 2016년의 혁명을 통과한 인물이 혁명의 기록에서 지워진 그 시간을 지금 이곳의 혁명의 시원으로 불러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불가능하다는 감각으로 팽배한 2006년에, 시민 대중의 손으로 직접 정권을 바꾸는 역사적 현장의 한복판을 지나는 2016년 즈음에, 왜 윤이형과 황정은은 1996년의 그 시공간을 떠올리는가. 현실에 대한 어떤 판단이 1996년의 그 시공간을 불러왔는가. 아니

1) 윤이형, 『큰 늑대 파랑』, 『큰 늑대 파랑』, 창비, 2011

그 시간을 기억하는 행위와 재현의 수행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재편하는가.

그들의 기억의 환기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실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이 학생운동의 차원에서도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의 차원에서도 쉽사리 복기하기 어려운 꺾끄러운 지점들을 담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건대, ‘화염병’·‘쇠파이프’와 연쇄적으로 환기되는 ‘불타는 연세대 종합관’이라는 이미지는 학생운동을 과격한 폭력성과 뿔 수 없게 연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학생운동의 반사회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미지는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 이후로 뚜렷해졌다.²⁾ 1996년에서

2) “이번 한총련 사태는 시위사상 가장 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낳았다는 수치스런 기록을 남겼다. 또 향후 학생운동에서 새로운 주체 및 방향설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과 함께 유사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던져 주었다./ 학생과 경찰의 첫 충돌이 발생한 지난 12일 이후 9일 동안 무려 5천 6백여 명의 학생이 경찰에 연행됐다. 또 학생·전경 1천 5백여 명이 부상했으며 연세대 내의 각종 시설물 파괴, 주변 교통마비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를 남긴 근래 보기 드문 무력충돌 사태였다./ 많은 시민들은 이 불행한 사태가 한총련의 폭력 시위 및 무분별한 통일운동에서 촉발됐다고 믿고 있다. 통일운동이란 당위성을 내세웠지만 시위 도중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했으며 대학생을 북한으로 밀입북시킨 행위 등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압과정을 주시해온 상당수 시민들은 공권력의 대응방식 역시 이번 불행한 사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이 통일축전 행사를 위해 11일부터 연세대로 집결 중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차단에 실패해 사태 발생을 미리 막지 못했다. 정부가 17일 한총련 핵심조직을 이적 단체로 규정, 뿌리뽑겠다고 밝힌 직후에야 경찰은 시위 장소인 연세대 외곽을 봉쇄, 시위자 전원 검거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외곽 봉쇄, 음식·약품 반입 차단 등 지상 작전과 함께 최루액 살포 등 공중 작전을 병행, 『지쳐 제 발로 나올 때 검거한다』는 초강경 진압을 벌였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연세대 사태』 뭘 남겼나 학생운동 “변혁 기로”》, 『경향신문』, 1996.8.21.) 물론 학생운동의 위상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었다. 강압과 조작으로 얼룩졌음에도 1991년 5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운동권을 대의나 운동을 위해서라면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패륜아들로 규정하게 하는 계기였고, 사실상 학생운동의 폭력성과 민주화 세력의 반도덕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거론되었다. 이재원, 『時代遺憾, 1996년 그들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신세대, 서태지, X세대』, 『문화과학』 62, 2010, 96-97쪽.

1997년에 걸쳐 사회 ‘내’ 비판적 견제 세력으로서의 학생운동의 자리는 사회 ‘바깥’의 반-국가적인 집단의 일탈적 행위로, 이적-용공 세력의 위협한 활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국가 차원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에 대한 관점 차이로 표출되고 있었지만, 사회 ‘내’ 비판적 견제 세력으로서의 학생운동의 위상은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립과 그 결과로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애매해질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에 대항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차원에서 운동의 대상이나 방향 그리고 방식에서의 변화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급기야 1998년에 한 사회학자에 의해 “한국 근현대사의 발전 도정에서 큰 족적을 남긴 한국의 학생운동”은 “이제 모두의 골칫거리”³⁾가 되었다고 진단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비판적 저항운동의 폭력성은 행위 자체로부터 규정되지 않으며, 정치적이고 맥락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야 한다. 따지자면 이 시기의 학생운동이 특별히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고는 단정 짓기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96년 전후의 학생운동의 폭력성 논의가 이루어지던 담론적 지형으로의 관점 전환을 요청한다. 운동 자체의 폭력성 여부가 아니라 학생운동이 ‘과격하고 폭력적인’ 대-사회적 일탈 행위로 의미화되고 있는 그 전환적 장면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당시 공공연하게 학생운동을 두고 공유하던 판단, 예컨대 “학생운동의 몰락”이 곧 “대학사회의 황폐화”⁴⁾로 이어진다는 판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러한 판단은 어떤 역사적 시야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지에 대해 묻게 한다.

3) 김동춘,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19, 1998, 101쪽.

4) 김동춘,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19, 1998, 113쪽.

학생운동의 자리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면서 한국사회가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며 동시에 그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 잃은 것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소설을 통해 환기되는 1996년 8월은 그때 외면했거나 누락했던 무엇을 다시 불러오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 전환적 질문들은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의 의미가 원천봉쇄와 무력진압으로 귀결된 사태라는 정치적 맥락으로만 한정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⁵⁾ 따라서 1996년 8월을 두고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사건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재편(하계)한 사회적 조건 변화와 그것이 야기한 여파와 같은 것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을 둘러싼 이러한 질문들을 품은 채로, 왜 윤이형과 황정은의 소설이 현재적 관점에서 1996년의 학생운동과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을 떠올리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1996년 8월인가’라는 질문을 두고, 2006년과 2016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의 병치를 통해 윤이형과 황정은이 재현한 혁명의 시원이 갖는 서로 다른 맥락적 의미망을 검토하고 그 의미망의 차이와 그럼에도 공유되는 인식의 밑그림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 글의 관심은 1996년 학생운동의 풍경이나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의 실체와 본질의 엄밀한 의미를 포착하거나 확정짓는 데에 있지 않다. 오히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과 거리를 둔 자리, 좀더 정확하게는 ‘연세대

5) 학생운동의 가능성 자체가 폐색 국면에 접어들게 된 ‘이후’의 관점에서 학생운동의 시대적 한계와 운동 주체의 실패나 역량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껏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되지 못한 이 지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학생운동 내에서 연례행사에 가까웠으며 실질적으로도 이전 해와 규모나 진행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통일대축전(‘범청학련축전’) 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귀결을 맞이했다는 점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짚어두고자 하는 것은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의 사회적 의미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검토 자체를 통해 마련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건' 혹은 그것으로 상징되는 무언가로 기억된 아니 망각된 지점으로 향한다.

2. 가상 공동체 시대의 세대기억: '우리가 뭘 잘못된 걸까?'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이념적 전환의 시대가 야기한 다양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었다. 1991년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선언은 당시에는 실감하지 못했다 해도 사회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가능하게 할 저항세력의 몰락을 불러왔다.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와 경제적 요인의 결합에 따른 지식·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상실의 결과로서 비판적 주체 형성이 난국에 처하게 된 것이다.⁶⁾ 그리하여 1990년대 초중반은 1992년 서태지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바, 신세대론의 시대로, 대학생이라는 세대적 동질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개별자 청년이 등장한 시대로 이해되었다.⁷⁾ '정치적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압축되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1991년 전후로 전위의 선도에 의한 운동의 가능성이 점차 협소화되었고, 공동체 의식의 해체와 재구축 과정이 불러온 개인이 새롭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가 패션과 스타일로 대변되는 신세대의 등장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공동체 의식의 해체와 재구축 과정에서 열린 가상 세계의 가능성이었다. 2010년대 이후 뚜렷해진 1인 미디어의 등장이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불러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PC통신으로 열린 가상 세계

6) 김정환, 「대학 정치의 주체와 대안」, 『대학: 담론과 쟁점』 1, 2016, 73쪽.

7) 소영현,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387-416쪽.

는 미디어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운 광장의 대두를 통한 대안 미디어의 가능성으로 검토되었다.⁸⁾ 물론 PC통신이 만들어낸 가상 세계가 미디어적 혁신의 차원으로만 상상되었던 것은 아니다.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 인용』으로 1993년 연세문학상 소설부분에 당선되었고, 당시 하이텔 순수문학동호회 ‘이야기나라’의 창작란인 ‘글마을’의 시삽이었던 송경아는 통신공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 바 있다. 송경아에 따르면, 통신에 접속한다는 행위는 “24시간 아무 때나 호출할 수 있어야 하고”,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봐 주어야” 하며, “떠들고 싶을 때는 마음 놓고 떠들 수 있고, 가만히 있고 싶되 심심한 것이 싫을 때는 그쪽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⁹⁾, 말하자면 어릴 때 꿈꾸었던 이상적인 친구와의 만남의 현실화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는 햇빛이 두 눈을 찢러 거의 열두시가 다 되어가는 낮이었다. 밤늦게까지의 채팅과 전화와 독서가 아침에 주는, 온몸이 저릿저릿한 나른한 피곤을 느끼며 그녀는 부신 눈을 뜬다. 렌즈를 끼지 않은 눈은 흐릿하고 침침하다. 사물의 테두리가 물에 번진 것처럼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습관처럼 컴퓨터를 켜다. 켜지지 않는다. 화장실 불이 나갔다.

컴퓨터 앞에 돌아와 본다. 역시 켜지지 않았다. 정전이구나. 엄마는 나갔고, 집에는 그녀 혼자뿐이다. 잠시 그녀는 집 안에 혼자라는 것과 정전 때문에 아득하게 막막해한다. 그건 마치 그녀의 일상 아닌 일상과 같다. 아무데도 소속된 데가 없는 일상.¹⁰⁾

8) 윤영철,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1), 한국언론학회, 1998, 184-218쪽.

9) 송경아, 『통신 글쓰기의 여러 가지 모습』, 『오늘의 문예비평』 25호, 1997, 29-30쪽.

10) 송경아, 『이카라』,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 인용』, 여성사, 1994, 7쪽.

가족과 동료 모두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고립감과 한강변에서 바람을 맞으며 만끽하는 자유를 멜랑콜리한 분위기로 표현한 소설 『이카라』의 첫 장면은 현실 세계에서 좁혀지지 않는 타인과의 거리가 컴퓨터를 통한 전기 신호를 통해 좁혀지는 세계로 시작된다. 그 세계를 사는 존재에게 집안에 혼자 남아 있는 아득하고 막막한 감정은 정전으로 켜지지 않는 컴퓨터 앞에서의 허망한 감정과 다르지 않으며, 그것은 곧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부유감으로 감각된다. 전면적인 수평적 소통을 열어젖힌 인터넷 문화가 갖는 대중성과 확장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부족적인 성격을 갖는 PC통신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개별적 주체로 등장한 개인이 가상공간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감각을 만들어내는 이 장면을 1990년대적 풍경의 상징적 단면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자유를 꿈꾸던 시대의 희생들, 죄의식으로 돌이켜질 수밖에 없는 1990년대의 그 시절, 그때를 살았던 청년들에 대한 애도이자 PC통신 시절에 대한 문학적 헌사이기도 한 『큰 늑대 파랑』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세대적 부채를 유니크한 방식으로 기록한다. 뭘 잘못된 것일까. 윤이형의 소설 『큰 늑대 파랑』의 청년들이 이 질문에 사로잡히고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된 1990년대를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이텔 PC 통신 시절인 1996년 3월 어느 날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탄생한 파란색 색감의 늑대는 십년의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을 탄생시킨 청년들, 말하자면 자신의 부모를 구하기 위해 간혀 있던 종이를 뚫고 현실 세계에 출현한다. “우리를 잃고 세상에 휩쓸려 더러워지면”¹¹⁾ 늑대 파랑이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라는 네 명의 청년들의 주문(呪文) 혹은 구원을

11) 윤이형, 『큰 늑대 파랑』, 『큰 늑대 파랑』, 창비, 2011, 141쪽.

바라는 열망은 이상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한 좀비 확산 현상을 맞이한 서울에서 판타지처럼 실현된다.

좀비가 나타났대. 이젠 정말 갈 때까지 갔군. 왜 지금에야 나타난 걸까. 이런 일이 생기려면 훨씬 전에 생겼어야 했어. 사라는 농담처럼 혼잣말을 했다. 사라는 몇년 전부터 자주 혼잣말을 했다. 꼭 방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없었고, 없고, 없겠지, 아마도.

(『큰 늑대 파랑』, 103쪽)

소수자의 착취로 귀결되는 자본의 기만술에 스스로를 내던지고 그런 “자신을 비웃는 일의 위악적인 즐거움”에 휩쓸린 존재인 재혁(115쪽)과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애초에 좋아하는 일을 했으나 점차 자신의 밤별이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게 된 정희의 삶은 이제는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아영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았던 부모를 한순간에 잃고 생계를 위한 삶으로 내몰리게 된 사라는 낭비 없는 인생을 다짐한 후 의식 있고 취향 있는 삶을 살지만 그 삶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립된 삶일 뿐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향한 삶이었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고립 너머의 삶에 대한 기대는 없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런 줄 알았으면 대학 때 맑스의 『자본론』이라도 읽어둘걸. 그때는 그런 공부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 ... 우리가 뭘 잘못된 걸까? 그 사람들처럼 거리로 나가 싸워야 한 걸까? 그때 그러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난,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창피하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큰 늑대 파랑』, 138-139쪽)

어머니의 꼴을 삼키고 안에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하는 성장의 고통을 겪으며 파랑은 십년 전 부모들에게서 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늑만한 늑대로 재탄생한다. 속절없이 세상에 휩쓸려 자기다움을 잃고 사는 부모의 몸을 먹어치우면서 늑대(-후속 세대)가 몸집을 불리고 성장을 하며, 위협에 처한 늑대를 지키는 일을, 부모를 죽인 자가 실행한다. 아니 늑대(-후속세대)를 지키기 위해 준비가 된 자신의 부모를 스스로 처단한다. 잠깐이었던 버블 호황기가 끝난 이후 급격하게 경색되고 세속화된 한국사회에 대한 대속의식처럼 읽히는 『큰 늑대 파랑』은 새롭게 등장한 개인의 삶의 끝에서 그 너머에 대한 상상이 사라진 시간을 종말로 아닌 혁명이 요청되는 시간으로 본다. 희망과 절망의 구분만으로는 단정 짓기 어려운 낯선 방식으로 미래를 예견한다. 늑대와 준비 그리고 감염된 부모를 죽임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이보다 경악할 만한 인간 상실의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음을 환기한다. 1996년의 청년들이 겪었던 절망과 상실 그리고 부채의식에 대한 아름답고 강렬한 소설적 애도가 아닐 수 없다.

1996년 3월 어느 날, 시위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는 네 청년은 수업이 일찍 끝난 어느 날 교문에 다다랐을 즈음 시위대를 만나고 맨 뒤에 섰지만 곧 쿠엔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을 보러가기 위해 무리에서 이탈한다. 무리에서 벗어나 피 칠갑을 한 영화를 보고나와 그들이 접하게 된 뉴스는 시위 중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쓰러진 동년배 학생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뿐, 그 죽음은 곧 잊혔다. 아니 잊혔다고 믿었다. 1996년 3월 한 남학생의 죽음은 소설 내에서 “그 사건 이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다들 “무척 불안정한 성격으로 변했”(105

쪽)던 막연한 변화의 계기로서만 감지되었을 뿐이다. 한 학생의 죽음이 야기한 불안이 혁명을 예견한 사건에 대한 기미였음은 십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확인된다.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삶의 어딘가에 내내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다.¹²⁾

『큰 늑대 파랑』에서 죽음으로 기억되는 혁명은 부모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 갇힌 삶을 살면서도 언젠가 도래할 세상의 종말이자 자신을 가두는 상징적 부모를 겨눌 가슴에 품은 도끼로 의미화된다. 『큰 늑대 파랑』은 다수의 관심에서 배제되었으나 여전히 개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던 한 학생의 죽음이 자신들의 세대에 사라지지 않을 상흔을 남기고 그 상흔이 그들의 삶을 끝장낼 수 있는 도끼가 되어 끝내 다른 세계를 열어젖히게 되었음을 비장한 분위기로 선언한다. 가상의 시대, 개인의 시대, 문화의 시대가 은폐한 세계를 성찰하면서 『큰 늑대 파랑』은 개인의 시대가 실현된 듯한 세계의 한 가운데에서 바로 그 개인의 시대를 두고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질문한다.

12)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에서는 그 불안이 세대적 부채감이자 모종의 죄의식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996년에 서수경이 연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와 통일대축전에 학생회장단으로 참석한 이유는 그해 3월에 노수석(1976년 11월 23일 광주 출생, 1995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의해 사망, 2003년 9월 9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출처: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홈페이지)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노수석이 전투경찰에게 쫓기다가 사망한 장소는 서울 을지로 일대였고 그 부근은 서수경이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영화를 보거나 햄버거를 먹으러 놀러 가곤했던 장소였다. 서수경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거리에서 누군가가 전투경찰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가 자신과 동갑이라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았다. 1996년 8월에 연세대에서 우리가 모인다,라는 공지를 접했을 때 서수경이 떠올린 것은 그러니까 연세대 법학과 학생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사망한 동갑내기였다. 모종의 부채감이 있었다고 서수경은 말했다.”(황정은, 『아무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177-178쪽.)

이 질문은 그 기원의 복원이나 개인의 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호소가 아니다. 지옥 같은 세계를 뒤로 하고 늑대 파랑을 타고 달리는 「큰 늑대 파랑」의 끝은 그 시절의 여파에 대한 좀더 철저한 종결 선언에의 요청을 의미한다.

3. 성정치 시대의 삭제된 기억들: ‘무엇이 그대로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주변부적 관점에서 그리고 젠더적 관점에서 호명된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연세대 사건’을 ‘용공세력’이자 ‘극렬 폭력분자’의 반정부적 시위로 명명했던¹³⁾ 1990년대 후반의 시대 풍경을 좀더 들여다보자면, 정치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이동해간¹⁴⁾ 시대적 전환은 우선 학생운동의 성격에 전면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념과 토론 중심의 학술동아리 대신 문화동아리와 문화행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¹⁵⁾ 이때 페미니스트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¹⁶⁾ 여성운동을

13) 『조선일보』의 적극적 개입으로 불법성과 폭력성에 대한 담론적 재현이 점차 자연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조선일보』에 의한 폭력성 관련 담론의 형성에 관해서는 이승아, 『위기의 서사적 재현과 정치적 억압: 1996년 8월 한총련 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2, 161-194쪽 참조.

14) 이재원, 『時代遺憾』, 1996년 그들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신세대, 서태지, X세대』, 『문화과학』 62, 2010, 100쪽.

15) 김동춘,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19, 새얼문화재단, 1998, 112쪽.

16) 여성사연구모임 길밖세상, 『사이버 스페이스, 여성운동의 새로운 도전: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성폭력』,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331-336쪽. PC통신을 통한 여성 모임이나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조직이 생겨났다. 1994년 천리안에서 〈여성학동호회〉가, 1996년 하이텔에서 〈페미니스트의 천국〉이 만들어졌고, 1995년 나우누리에서는 여성모임 〈미즈〉가 결성되었다. 영 페미니스트 그룹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웹진

포함한 이러한 활동이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좀더 강조되어도 좋을 것이다. 여성의 출산과 수유에 관한 경험과 강간에 대한 공포 체험 조형물이 설치되고 남근 피라미드 설치물이 전시되었으며 스톤월 항쟁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와 퀴어 청소년을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이 상연되었다.¹⁷⁾ 각종 성정치 문화제와 페미니즘 문화제나 여성 문화제가 개최되었다.¹⁸⁾ 19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의 가장 큰 특징으로 ‘축제가 거론될 정도로, 여성 운동은 가부장제적 일상에 밀착하여 ‘개인적인 것’의 정치적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가를 강타한 ‘성정치’라는 용어의 범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 욕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¹⁹⁾ 성정치의 이름으로 여성 운동계에서 문화적 실험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고대생들의 집단 난동으로 자유로운 이화 공동체라는 여성 공간은 침해당하며 이화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은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위압감과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물리적, 사회정치적 권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 집단이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에 가한 의도적인 위협 행위이며 폭력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히 집단적 성폭력이지요.(이화여자대학교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당신이 고대생 집단 성폭력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997)²⁰⁾

형식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1996년 웹진 <달나라 딸세포>(dalara.jinbo.net), 2000년 여성문화 웹진 <언니네>(unninet.co.kr) 등을 만들었고, 1998년 진보넷 <여성마당>(bbs.jinbo.net/webbs/index.htm/?board=wom)을 통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 페미니스트 그룹들과 여성단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17) 달과 입술, 『나의 아름다운 전쟁』,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2000, 27-28쪽.

18) 달과 입술, 『축제의 정치, 저항의 페스티벌』,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2000, 87-120쪽 참조.

19) 달과 입술, 『축제의 정치, 저항의 페스티벌』,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2000, 68-76쪽.

20) 달과 입술, 『욕망이라는 이름의 폭력』,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2000, 143쪽 재

여성운동의 전반적인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1996년 5월 29일에 있었던 이화여대 ‘고대생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된 논의 지형이다. 이 사건으로 대학 내 성별이 가시화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대학 내에서 대학생과 여대생이 존재했지만 그 차이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되어 왔다는 사실이 환기된 계기였다.²¹⁾ 성의 공문화에 입각한 성정치가 성해방으로 즉 자유로운 개인의 발견과 함께 무조건적인 도덕률 위반이나 욕망의 분출로 이해되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남성의 성해방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로 귀결되는)²²⁾ 한편에서, ‘고대생 집단 난동 사건’을 계기로 관습처럼 일상화된 여성관과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문제적 지점으로 즉 ‘성폭력’ 담론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된 이 사건 이후, 여성 운동적 차원에서 그해 여름에 있었던 ‘연세대 사건’은 좀더 복잡한 이해를 요

인용.

- 21) 여성사연구모임 길밖세상, 『시대의 무게를 벗고 일상의 정치에 나서다: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 영 페미니스트』,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323-324쪽.
- 22) 서구에서 1960년대의 성해방 운동과 포르노그래피의 합법화가 남긴 유산이 여성의 해방이라기보다 오히려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환기할 수 있듯(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정금나·김은정 옮김, 삼인, 2002, 82-86쪽.) 진보적 운동세력의 퇴조 경향 속에서 대중의 등장이 불러온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요청이 더 이상 현실에서 불가능해진 혁명을 섹슈얼리티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마광수와 장정일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스캔들과 법적 제재는 ‘표현의 자유’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배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자유로운 개인의 발견이 섹슈얼리티 담론의 범람 속에서 성적 자유의 실현을 통한 주체화의 담론으로 이해되는 와중에도, 결국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살아 있는 것으로 즉 역사적으로 주체적인 것으로 재현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역사적 주체화 과정에 동원됨으로써 탈역화되고 타자화되어 비주체의 자리로 떠밀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실패한 혁명 이후의 무기력한 남성 주체는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역사성을 확보하며 주체로의 재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김은실,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재현과 대중문화』,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하나문화, 2001, 77쪽.)

청하게 되었다.

1996년 전후 대학가의 젠더 의식을 엿보게 해주는 최은영의 소설 『뭇』(2018)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해마다 있던 일이었지만 1996년 그해는 유독 폭력의 수위가 높았다. 500여 명에 달하는 당신의 학교 학생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호루라기를 불며 대동제가 진행 중이던 A여자대학교 광장을 점거했다. 기차놀이 대형으로 A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밀치고 폭행했다. A여자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가격당했다.”²³⁾ 지나치게 과격한 폭력 행위로 결국 학생 7명이 유기정학에 처해지는 심각한 사태였지만, 여자대학교 축제에서 남학생들이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당시에는 연례행사로서 기껏해야 “소수의 치기 어린 행동”이거나 “눈 감아 줄 수 있는 전통” 정도로 치부되었다. “폭력이 남성의 전유물로 포장돼 용인되는 성폭력 문화의 단면”으로²⁴⁾ 인식했던 한 여성학자의 판단과는 거리가 먼 감각이었으나, 조금 과격한 연례행사였다는 판단에 스며있던 당시의 인식은 무딘 젠더적 감수성의 일면이라기보다,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던 청년·남성에 대한 신뢰 즉 시대의 주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가까웠다.

『뭇』에서 신입생인 희영과 해진을 교지 편집부로 이끈 것은 선배 정윤이 쓴 1996년에 있었던 그 난동사건에 관한 취재기사였다. 이후로 정윤, 희영, 해진은 서로 인간적 친밀감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나, 96년 전후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과 감각의 차이로 서로 엇갈리고 끝내 전혀 다른 삶의 형식을 갖게 된다. 글쓰기에 대한 서로

23) 최은영, 『뭇』, 『한국문학』 2018년 하반기, 99-100쪽.

24) 〈이화여대 여성학과 장필화 교수 ‘절반의 성 ‘깨우는’ 강단의 운동가〉, 『경향신문』 1996.6.18.

다른 입장으로 표출된 그 감각을 그러나 단지 글쓰기에 대한 개인적 취향으로만 협소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 사이의 삶이나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글로 행하는 운동과 사회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운동 사이의 간극만큼이나 큰 것으로, 그것은 말하자면 시대의 모순과 역사의 진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삶으로서 보여준다고 해야 한다. 그 인식의 차이는, 여자대학교 축제에서 남학생들이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해도, 그 문제의식이 놓인 지평에 두르는 서로 다른 맥락을 상정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몇 해 전 B대학교에서 있었던 교수 성희롱 사건이나 5주기 추모 집회를 맞이한 기지촌 여성 문제를 기사로 다루고자 할 때, 그러한 주제들은 “시류를 읽어야” 할 시대에 “정치와 사회의 흐름을 읽어나가야 할 지면”에서(104쪽) 협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로서 치부되었고, 김영삼 정권 말기의 정치적 상황과 학생운동의 분열과 쇠퇴, 공권력 남용과 같은 문제와 지면을 다루다가 부차적으로만 다루어지거나 결국 폐기된다. 기사 선정을 위한 논의 장면을 통해 『뭉』은 대학 내에서 여성 문제를 다루는 풍경과 그 시절의 젠더 감수성을 포착한다. 그것을 통해 여성들이 각기 다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그러나 그것이 단지 여성들 내부의 차이로만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성 문제를 스스로 협소하고 지엽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는 ‘문제로서’ 다룰 수 없던 시절임을 인정한 채로, 교수 성희롱 문제를 “일개 여성 문제가 아니라 대학원 사회의 기형적인 권력 구조”(104쪽)로 거론하거나, 기지촌 여성의 문제를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자 한 선배 정운의 입장이 주한 미군이 철수하든 통일 조국의 날이 오든 “여자들이 맞고, 강간당하고, 죽임당하는 일”(117

쪽)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반박하는 희영의 입장과는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기지촌 여성 추모 집회에서 죽은 여자의 시신이 조국의 모습으로 호명될 때, “강간은 미국에서!”(115쪽)와 같은 구호가 규탄 발언으로 외쳐지면서 강간이라는 말이 집회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 그러한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마음의 깊은 바다에 금이 간 느낌”(115쪽)을 떨칠 수 없게 된 이후로, 희영이 다루고자 한 사안들의 문제적 지점에 대해 공감해왔음에도 “굵직한 정치 사회적 의제들이 많았던 1997년 겨울”에 “1992년 가을에 벌어진 미군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115쪽)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으며, “여성 문제요? 본인이 돌아가신 분과 같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거 오만한 생각 아닌가. 너무 다른 입장 아닌가. 희영은 그런 삶을 경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희영이 그렇게 가난해본 적 있어요? 몸을 팔아야 할 만큼? 대학 교육까지 받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으면서 희영이 같은 여자랍시고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117쪽) 라는 식으로 계급적 기반이 다른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희영에게 가능할 것인지 의심하고 그런 태도를 질타하던 다수의 입장에 공감했던 해진 역시 희영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반복하거니와 그들 사이의 간극과 그로 인해 그들에게 허용되었던 서로 다른 자리는 결코 여성들 내부의 인식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 사회 내 비판적 견제세력으로서의 운동의 자리에 대한 시대적 변화의 기미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당시 학생운동의 의미에 대한 갈래화된 맥락이 여성 문제를 통과하면서 가시화되었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을 두고 말해보자면, ‘고대생 집단 난동 사건’을 통과한 후, ‘연세대 사건’을 바라보는 복잡한

맥락이 구성되면서, 운동 내 젠더 문제가 가시화되었고, 소설 속 그들이 놓인 자리의 간극 역시 뚜렷해진 것이다. 그 간극은 운동에 대한 탄압의 관점에 설 것인지, 구조화되고 재생산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성문제를 전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운동권 내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이러한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몰정세적인 것은 아닌지, 독자적인 여성 운동의 흐름이 아직 학내에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책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등과 같은 질문을 구성하고,²⁵⁾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여성연대를 마련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응 속에서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로, 그 간극은 1990년대 후반의 시간을 동일한 세대 감각으로 회상할 수는 없음을 가시화하며, 무엇보다 그 시간이 결코 상대화될 수도 거리화될 수도 없음을 역설한다. 이런 의미에서 『뭉』의 기억하기는 과거의 시간을 완결된 사건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매번 해석하고 개입하며 재의미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현재화하는 정치적 수행이자 실천이 아닐 수 없다.²⁶⁾ 최은영의 『뭉』을 통해 1990년대 후반 대학교 교지 편집부의 풍경은 지금은 없는 존재인, 졸업을 하고 기지춘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자신의 능력과는 그리 부합하지 않는 듯한 식품회사 총무과에서 오래 일했고, 결국 병과 싸우다 서른아홉에 세상을 떠난 희영과 함께 기억된다. 아니 당시에는 누락되거나 은폐되었던 사건들을 통해 희영과 함께 희영에 의해, 당시에는 온전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던 존재와 감정이 발견된다. 『뭉』의 그녀들을 통해 1990년대 후반은, 대중문화적 세목으로 시대의 풍경을 채우는 복고풍의 노스탤지어와는 정

25) 달과 입술, 『육망이라는 이름의 폭력』,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2000, 144-146쪽.

26) 김신현경·김주희·박차민정, 『페미니스트 타임워프』, 반비, 2019, 191-203쪽.

반대로,²⁷⁾ 가시화된 역사가 흔들리고 그 틈새로 지워졌던 존재와 공간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4. 광장의 젠더, 촛불과 페미니즘의 시간 사이로: ‘오늘은 어떻게 기억될까’

혁명은 완주될 수 있는가. 혁명의 끝 아니 시작이 있을 수 있는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헌정 사상 유례없는 2016년 광화문 광장의 경험을 기록한 작가 황정은에게 혁명은 기록될 수 없으며 매번 다시 기억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혁명은 혁명을 경험하는 수많은 서로 다른 존재들의 기록‘들’이자 매번 해독되어야 하는 기록의 갱신‘들’인 것이다. 『디디의 우산』(2019)을 통해 작가는 2016년 촛불광장의 경험에 1996년 8월 연세대의 기억을 병치시킨다. 오랫동안 염원하던 혁명의 현재성 앞에서, 혁명의 한복판에서 혁명이 지운 시간과 존재들을 떠올리고 과거의 사건에 ‘기억하기를 통해’ 개입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현재화하고 역사와 그에 기반한 기억을 재편한다. 과거를 현재화하고 재편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상상한다.²⁸⁾

27) 서동진, 『플래시백의 1990년대: 반기억의 역사와 이미지』, 『동시대 이후: 시간-경험-이미지』, 현실문화연구, 2018, 72-82쪽.

28) 혁명의 한복판에서 혁명을 회의하게 되는 황정은의 인물들을 박상영의 『우럭 한점 우주의 맛』(『대도시의 사랑법』, 창비, 2019.)에서 주인공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옛 애인과 나란히 두고 혁명의 의미를 고려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후일담 소설의 지독한 변주로도 보이는 박상영의 『우럭 한점 우주의 맛』에서 주인공의 시선으로 그려진 옛 애인, 5년 전 1년 넘게 만났던 남자 K대학교 국문과 95학번 76년생 용띠인 그의 부유하는 면모는 흥미롭다. “전직 운동권 학생회장의 후일담”(139쪽.)의 쿼어 버전처럼 보이기도 하는 『우럭 한점 우주의 맛』에서 “암구정동 출신으로 학생운동에

서수경과 나는 1996년의 고립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 각자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말이다. 그 고립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고 다만 묻혀 있다가 2008년 6월 10일, 광화문 대로에 명박산성이 등장했을 때와 2009년 1월 20일, 용산에서 남일당 건물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구체적으로 환기되었다.²⁹⁾

투신해 도청을 당하는 20대를 살았으며 지금은 철학자의 글을 읽고 고치”(141쪽)며, 운동권 시절의 자신에게 간혀 시대착오적으로 과거를 사는 그는 끝내 ‘오늘’의 자신을 인정하지도, 자신의 욕망을 정면으로 응시하지도 못한다. ‘한총련’ 사태를 겪은 마지막 운동권 세대인 그는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허리를 꼴뚜기 펴고 앞만 보고 걷는 습관,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한 태도, 조용히 침묵을 지키다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를 얹어 모든 일의 결정권자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버릇을 대학 시절 문과대 학생회장 시절의 흔적으로 갖고 있다.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에도 몸담은 적 있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안티 조선 운동, 광우병 시위에도 적극적으로었던 그는, 제국주의라는 단어조차 낯선 내게 “미국의, 미제의 모든 것들이 불편하다”(122쪽)고, “미제국주의”가 불편하다고 토로한다. 그런 그는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나 모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입거나 쓰는 나의 정치적 무지를 힐난하는 동시에 우럭 한 점을 먹으면서도 우주와의 교우를 떠올리고 개똥철학에 가까운 낡은 신념을 펼치면서도 철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에 충실하다.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하는 태도를 지속하려 하지만 운동권의 세계에 간혀 있는 그는 권위와 위계 아니 개인의 상위에 존재하는 조직의 이름 앞에 한없이 무력하다. 무엇보다 그는 사회적으로 게이로서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끈대 디나이얼 게이”(113쪽)로서 과거에서 벗어나지도 현재에 안착하지도 미래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공회전을 하듯 현실과 만나지 못한 채 헛돈다.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이었다고 몇 번 구속된 적이 있으며 현재는 무슨 역사단체의 연구교수라는 남자 선배와 운동권 시절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참여문학 계열의 문학상을 수상하고 유명한 저자가 된 여자 선배가 귀어를 두고 농담처럼 일컫는 말들은 그들의 과거 화려한 운동 경력과 무관하게 아니 그런 경력으로 인해 더 심한 혐오와 환멸을 불러온다. 스스로를 사회에 비판적인 진보주의자라 믿는, 실제로는 무례한 끈대에 불과한 속물적인 그들과 자신의 분리를 완수하지 못한 채, 그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아니 그들은 이미 망각해버린 그들의 과거의 이념적 세계에 사로잡혀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그를 통해, ‘연세대 사건’의 여파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소외와 고립의 기억을 만들어낸 96년 8월의 시공간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다시 질문하려 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혐오와 부인을 불러오는가를, 그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워버리는가를 희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9) 황정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187쪽.

어린 시절을 회고하다가 내가 우리 집 현관에 배어 있던 1987년 6월의 최루탄 냄새를 말하자 김소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자기에게는 그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며 그보다는 1996년, 이라고 말했다. 1996년 여름에 김소리는 상업고등학교 상과 학생이었고 홍익대학교 인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합정역 근처에서 버스를 탔는데 이미 그 버스의 승객이었던 대학생들이 이제 막 버스에 올라탄 김소리에게 내리라고 야단스럽게 손짓한 일이 있었다고 김소리는 말했다. (...) 김소리는 처음에 당황했고 곧 짜증이 치밀었다고, 그들이 선량하게 “너를” 배려한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싫었고, 자기들 몸에 두른 띠에 적힌 민족, 민주, 같은 것들이 “너와는 관계가 없으니” 저리 가라고, 그 언니오빠들이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232-233쪽)

왜 1996년 8월의 연세대인가. 여름날의 아침 안개처럼 부유하다가 영뚱하게 굴러들어간 장소임을 거듭 강조할 만큼, 나와 서수경에게 1996년 8월의 연세대는 시대나 대의와 민족과 같은 집단적인 차원의 목적이거나 신념의 실천과는 거리가 있는 공간이었다. 민족과 대의를 위해서라기보다 그 자신의 자리를 알 수 없었던 이들의 자리 찾기를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밀려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자리를 확인해야 했다.

『디디의 우산』에서 1996년 8월 9일간의 경험은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고, 폭력이라는 틀을 씌운다”(188쪽)는 틀tool이 만들어진 시원이었다. 2016년 촛불광장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불러온 1996년의 기억은, 말하자면 망각의 시간에 봉인되었던 고립의 경험이었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묻혀있던 고립의 기억은, 2008년 6월 광화문에서 그리고 2009년 1월 용산 남일당 상가 건물 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벽’을 통해, 그 장벽이 만든 물리적 봉쇄와 이념적 봉쇄를 한꺼번에 떠올리게 했다. 운동과 그

바깥을 가로지르는 ‘장벽’과 함께 운동 내부에 존재했으나 보이지 않았던 ‘장벽’, 그 이중의 장벽이 만들어내는 고립의 경험이 그들에게 그 경험의 시원인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을 호명하게 했으며, 고립의 기억은 결과적으로 ‘연세대 사건’에 대한 기록의 누락이 만든 여파를 확인하게 한 것이다.

지난 해 8월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붙잡히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아무개(22. 0대 3)씨 등 5명은 30일 “경찰관들이 연행하거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꼬집는 등의 성폭행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 앞에 2천만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8월 18~20일 연세대 종합관 진압 및 학생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X년 뭐가 잘나서 쳐다보냐. 누가 데모질 하래” 등의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두통에 시달리거나 대인공포증까지 생겨 외출을 삼가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³⁰⁾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추미애는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있었던 한총련 시위의 이적성과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은 데 비해 정작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진압과 성추행 등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피해 여학생들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³¹⁾ 추미애 의원의 주장을 도와 공

30) <“한총련 시위 연행·조사때 성추행 당했다” 여대생 5명 1억 손해소>, 『한겨레』 1997.1.31.

31) 추의원은 내무위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여대생 성추행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발언 서두에서 “여성으로서 입에 담기 힘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여학생들이 밝힌 적나라한 성(性) 표현을 ‘여과없이’ 소개했다. 반박하는 여당의 공세에 추의원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국감 자리가 아니면 어디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변호하느냐며 … 들

권력을 가진 경찰의 폭력적 대처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의원들(이기문, 유선호)이 있었으나,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는 ‘한총련의 이적성과 폭력성’이라는 반박 논리는 강고했다.³²⁾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직접 증언할 뜻을 가진 학생도 여럿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졌으며,³³⁾ 이후 여대생 7명이 경찰청장(박일룡)과 현장 진압 책임자 및 불특정 진압경찰관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소하는 등³⁴⁾ 사건의 공론화가 지속되었지만, 결국 1997년 4월 여대생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종결되고 만다.³⁵⁾

기 싫은 분은 듣지 마세요! ...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진실을 밝히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편집부, 『여대생 성추행사건 진상조사를 보며』, 『한국여성신학』 28,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6, 70-71쪽.

- 32) 신한국당의 이재오 의원은 ‘정조마저 유린하는 야만적 행위를 저지른 김영삼 정권을 준렬히 단죄하자’는 요지의 평양방송 녹취록을 인용하면서, ‘한총련의 진북 이적성을 외면한 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의원을 공격했다. 이러한 여당의 공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추의원의 성추행 피해 소개를 두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운운한 남성 의원의 발언이었다.(<『경찰 성추행』 또 격론>, 『동아일보』 1996.10.16.) 신한국당 강성재 의원은 남성들도 쓰기 어려운 적나라한 표현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이것을 문제 삼아 신한국당 위원들은 조사소위원회 구성안을 부결시키고 국정감사장을 떠났다.(<시위 여대생 성추행 진상 밝혀야>, 『한겨레』 1996.10.11.)
- 33) <‘한총련 여대생 성폭력 수사’>, 『한겨레』 1996.10.17. 당시 서울 지방경찰청장 황용하는 과거 폭력시위 진압 때마다 한총련에서는 ‘경찰의 사기 저하’를 의도하며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세대 사건’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체 확인 결과 밝혀진 바 없다며 사실무근을 주장했다.(<‘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주장 추미에 의원 폭로 연대사태 연행 조사 때>, 『경향신문』 1996.10.10.)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쪽이 연행 학생 1백 8명을 직접 조사한 결과 36건의 성 관련 폭언과 41건의 성추행, 86건의 폭행과 4건의 고문과 허위자백 등 모두 2백 90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었다.(<‘전경 추행’ 첫 법정진술>, 『한겨레』 1996.10.19.)
- 34) <한총련 여대생 ‘경찰 성추행’ 고소>, 『한겨레』 1996.11.22.;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검찰 본격수사 나서>, 『한겨레』 1996.12.2.
- 35) <‘경찰 성추행’ 항의 시위>, 『경향신문』 1997.4.4.

학생운동의 반사회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은 기억할 수도 회상할 수도 없는 시공간이 되었다. 가시화되었던 사회적 여성혐오와 젠더 편향적인 운동의 성격 또한 과거의 시간 속에 함께 봉인되어버렸다. 『디디의 우산』에서 수행된 혁명의 시간에 대한 병치는 바로 그 봉인을 깨뜨렸다는 데에서 의미를 갖는다. 젠더적 결계를 깨뜨리고 보면, 1996년 8월의 시간은 말하자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라는 거대하고도 괴로운 착각”(306쪽)에 균열이 생긴 시작점이자, 어떤 정체성도 다른 누군가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정체성의 무한한 폭발 시대가 열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체성들은 여전히 아니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말해지지도 가시화되지도 않았으며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나 영역으로 취급되어왔음을 환기하는 변곡점인 것이다.

고립의 기억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기억으로 대표되는, 언제나 “그게 무엇이든” “그 일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믿는”(213쪽), 상투성과 무사유의 세계이다. 물론 『디디의 우산』을 통한 비판이 아버지의 세계로만 고정되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투성과 무사유의 세계 역시 유동적인 것이며 언제나 반복적으로 재구축되는 세계이기도 하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상투성의 세계에서 나와 서수경의 경험이 누락되었다면, 상업고등학교 상과 학생으로, 신촌의 한 대학 인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동생 김소리의 1996년의 경험은 나와 서수경의 기억에서 누락된 것이었다.

혁명의 기억은 혁명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는가의 여부로 구축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동시에 『디디의 우산』은 타자의 자리에 대한 성찰과 타자를 비가시적 영역으로 내몰아 고립의 경험에 가두는 ‘상투성과 무사유의 세계’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자신의 것일 수도 있음을, 그러므

로 언제나 그 자신의 시야에 대한 예민한 성찰력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누구도 죽지 않는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열세 번째 시도의 결과물이자 그간의 실패의 기록들 즉 끝낼 수 없었던 소설들로 채워진 소설 『디디의 우산』 속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상투성과 무사유의 세계 바깥에 대한 소설적 재현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는다. 그것은 혁명의 소설적 재현에 대한 가능성의 타진이기도 하다. 이 세계의 끝과 그 다음을 상상하지만,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상투성과 무사유의 세계’에 대한 소설적 재현이란 언제나 누군가 죽는 이야기로 귀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세계로부터의 도피나 외면만이 가능할 것이고, 결국 소설을 끝내기 위해서는 ‘탈출하는 이야기’라는 거짓과 기만의 세계를 끌어오게 될 것이며,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결국 소설을 끝낼 수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주권자를 바꾸는 시간, 그 혁명의 시간을 축으로 그간의 실패한 혁명의 시간들을 이어붙이면서,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에서 소설 전체에 걸쳐 반복하는 “오늘은 어떻게 기억될까”(162쪽)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은, 그 오늘이 “불모의 세계를 탈출하는”(195쪽)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즉 실패로 끝난 그간의 기록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는가, 혁명의 기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낼 수 없고, 그 그림자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오늘’을 원했으나, 그 ‘오늘’에 드리운 과거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자살한 츠바이크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어찌면 탄핵과 심판의 날에 대한 기록은 내부에 수많은 균열을 품고 있으며 죽음의 계기를 담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가능한가. 흥미롭게도 “단편이 되다 만 열한 개의 원고”와 “장편이 되다 만 한 개의 원고”(151쪽), 미완이자 시도이자 흔적들인 그 이야기들을 이어 붙여 12개의 “죽거나 죽어가거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151쪽)을 담은 미완의 소설들을 통해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탈출이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여기서”(292쪽) 모두를 “흔들어 깨우는”(315쪽)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를,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날을 위해 계속 다시 말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은가를 말한다. 아무도 죽지 않는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한 열세 번째 시도는 그렇게 열두 번의 미완의 기록들을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 탈출 없는 탈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쓴다. 그 시도들이 탈출임을 역설한다. 그리하여 이전의 실패의 기록들이 다른 역사적 현재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기억의 현재화와 혁명 주체의 젠더적 재편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에 대한 관심의 각도 변경을 통해 기록과 기억의 현재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성찰해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혁명이 되지 못한, 실패한 비판정신은 어떻게 기억되는가’로, ‘기억의 현재화는 역사를 어떻게 재편하며, 역사/혁명의 주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가’라는 질문으로도 바꿔볼 수 있다.³⁶⁾ 1991년 학생운동과

36) 오해를 줄이기 위해 덧붙이자면, 이 질문은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이 혁명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선언과는 관계가 없다. 학생운동사의 차원에서 ‘연세대 사건’이 갖는 의미는 그것대로 짚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은 체제 전복이나 전환에 한정된 지칭 용어가 아니며, 무엇보다 그 의미는 사후적으로 반복해서 규정되어야 하는 맥락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은 철저한 실패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³⁷⁾ ‘연세대 항쟁인지 연세대 사태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항쟁이냐 사태냐의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운동사의 차원에서 승리의 기억인 1987년 6월 항쟁의 경우는 어떠한가. ‘직선제, 민주화, 넥타이 부대’를 통해 떠올리게 되는 승리의 기억을 1987년 6월 항쟁의 기록 자체로부터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좋은가. 반복적인 재현을 통해 구성된 사후적 기억을 공유한 결과는 아닌가.³⁸⁾ ‘386의 건국신화’로 평가받는 영화 <1987>(장준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국가 만들기과 국민 정체성 형성으로 구심화된 재현의 정치는 2016

37) 정성일, 『연대항쟁 10년, 우리는 어디쯤 와있는가』, 『월간말』 243호, 2006, 31-32쪽. ‘연세대 사건’의 교훈으로 운동의 가장 큰 원칙은 대중이며 민중임을 내화하지 못한 학생운동이 이후 몰락의 길을 걸었음을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공동체의 동지에 경험을 아름답게 회상하는 기억도 없지 않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한 3학년. 범청학련 1차 총회가 열리는지도 몰랐고 통일운동 상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였다. 그저 8월이면 의례 열리는 통일행사로 생각하고, 으레 벌어졌던 정부와의 몇 차례 충돌이 있고나면 마무리될 줄 알았다. (...) 어느새 나는 체결되어야 할 좌경용공 세력이 되어 있었고 9일간의 전쟁이 끝난 후 굴비처럼 엮여져 끌려나올 때에는 수갑을 차야 하는 폭력세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경들의 손에 온 몸을 추행당하면서도 공포에 질려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했던 어느 동기처럼, 구타에 못이겨 경찰서에서 전경의 군화를 혀로 핥아야만 했던 어느 후배처럼, 우리는 단지 연세대 안에 있었던 사실 하나만으로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폭도로 낙인이 찍혔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연대항쟁을 떠올리면 공포와 굴욕과 분노의 이미지보다 다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사수대 전체가 나누어 먹었지만 아직도 반 이상 남아있던 초코파이 하나와 물 한 컵, 피가 흘러내리는 머리를 붙잡고 앞장서서 싸우던 동지의 뒷모습. 그리고 잠시 최루탄 연기가 가신 하늘을 보며 어깨 결고 함께 부르던 혁명의 노래. 극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애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책속에 서만 보아오던 동지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연세대에서의 9일간 심장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처절했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은 빨강게 덧칠되어 왜곡 선전된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운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었다.”

38) 김원, 『87년 6월 항쟁』, 책세상, 2009, 14-15쪽. 이런 문제의식으로 김원은 87년 6월 항쟁을 기억과 이야기로 ‘기억으로서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년 촛불집회를 지나면서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³⁹⁾

김별아가 언급한 바 있듯이 참혹한 ‘현장’의 상황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운동 주체에게 “회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기억 속으로 끌려들어가 갈가리 찢기는 것”⁴⁰⁾이었으므로, 1991년 5월이나 1996년 8월 운동의 기억 자체가 그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억압되거나 지워진 것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거리에 몇 번 섰던 것만으로도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기억하는 1987년 6월 항쟁에서와는 달리, 인권유린이 극심한 현장이었으며 최대 최다의 연행자수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음에도 1996년 8월 연세대를 둘러싼 기억이 그곳에 있던 당사자들에게도 발언하기도 기억하기도 어려운 경험으로 그저 봉인되어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⁴¹⁾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이 학생운동의 참패와 몰락으로 기억되거나 운동사에서 언급조차 꺼려지게 된 사정 자체의 복원이 아니라, 그 사건의 호명과 재현에 주목하여 왜 그 실패의 장면이 다시 호명되고 있는지, 그 호명의 맥락은 무엇인가를 질문해보고자 한 것은 그 봉인을 깨기 위한 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⁴²⁾

39) 손희정, 『촛불혁명의 브로맨스-2010년대 한국의 내셔널 시네마와 정치적 상상력』, 『민족문화사연구』 68, 2018, 527쪽. 손희정은 촛불혁명기 역사극 열풍의 기이한 면모 속에서 2017년 개봉한 역사극 〈대립군〉(정운철), 〈남한산성〉(황동혁), 〈대장 김창수〉(이원태), 〈박열〉(이준익), 〈군함도〉(류승완), 〈택시 운전사〉(장훈) 그리고 〈1987〉(장준환) 등의 영화가 각각 임진왜란-병자호란-조선후기-구한말-식민지기-해방직전-1980년의 광주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다루면서 스크린 위에서 한국사를 다시 쓰고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40) 김정환 외, 『우리 시대의 초상, 20년 후의 애도, 1991년 5월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실천문학』 102호, 2011, 400쪽. 김별아의 발언.

41) 정성일, 『연대항쟁 10년, 우리는 어디쯤 와있는가』, 『월간말』 243호, 2006, 35쪽.

42) 이오성·박진희·박여선, 『한총련 막전막후 6박7일 밀착취재』, 『월간말』 181호, 2001, 121쪽.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직접적 탄압이 약화되자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총련 계열이 대거 당선되었고 학생회를 찾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보고와 함께, 향후 외형적 성장이 곧 한총련의 강화와 학생운동의 복원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록과 기억의 과정에서 누락된 지점에 대한 환기를 통해 결국 혁명의 기억이란 누구의 것이었는가를 질문하게 된다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검토 즉 윤이형과 황정은의 기억하기 수행을 추적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둘러싸고 새롭게 가시화되거나 현재화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윤이형이나 황정은의 소설에서 1996년 학생운동 풍경이나 8월 ‘연세대 사건’이 호명될 때, 호명의 주요한 주목요소 가운데 하나가 호명 시점이라면, 그만큼이나 주목되어야 하는 다른 요소는 호명의 주체라 해야 할 것이다. 윤이형이나 황정은의 소설에서 ‘실패의 기억’으로 남겨진 그 시공간을 떠올리는 이들은 운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체라기보다 운동의 주변부에 놓였던 존재들이다. 윤이형의 소설에서 주변부적 존재들은 황정은의 소설에서 좀더 뚜렷하게 젠더적 성격을 드러낸다.

요컨대, 윤이형과 황정은의 소설은 정치적으로 비가시화되었거나 젠더적으로 배제되었던 존재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혁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혁명은 무엇이며 또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주변부적 위상을 갖는 이들에게 미친 혁명의 영향 혹은 그들이 이해하는 혁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실패의 기억’이란 누구의 것이며 무엇에 대한 실패인 것인가. 주변부적 위상에 대한 인식과 ‘실패의 기억’으로 남겨진 1996년 8월의 이 시공간에 대한 호명의 상관성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상상과 체제 재편의 열망을 함께 나누는 혁명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혁명이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혁명의 순간에도 여전히 배제와 위계의 논리를 작동하고 있었음을 역설해준다고 하겠다.

기대가 없지 않았다. 1996년 8월 이후로 학생운동이 퇴락했다는 담론은 이후의 학생운동을 철저하게 비가시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창비, 2019.
윤이형, 『큰 늑대 파랑』, 창비, 2011.
최은영, 『뭇』, 『한국문학』 2018년 하반기, 97-125쪽.
황정은,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2. 논문과 단행본

- 김동춘,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19, 새얼문화재단, 1998, 101-116쪽.
김미정, 『움직이는 별자리들』, 갈무리, 2019.
김수지, 『재미교포 인권운동가의 한총련 출범식 참관기』, 『월간말』 121호, 1996, 174-177쪽.
김신현경·김주희·박차민정, 『페미니스트 타임워프』, 반비, 2019.
김 원, 『87년의 항쟁』, 책세상, 2009.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하나문화, 2001.
김정한, 『대학 정치의 주체와 대안』, 『대학: 담론과쟁점』 1, 2016, 68-77쪽.
김정한 외, 『우리 시대의 초상, 20년 후의 애도, 1991년 5월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실천문학』 102호, 2011, 395-433쪽.
달과 입술,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2000.
서동진, 『동시대 이후: 시간-경험-이미지』, 현실문화연구, 2018.
소영현,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387-416쪽.
_____, 『참여 과잉 시대의 비-시민 정치와 광장의 탈구축』, 『한국근대문학연구』 19(2), 한국근대문학회, 2018, 43-73쪽.
손희정, 『촛불혁명의 브로맨스-2010년대 한국의 내셔널 시네마와 정치적 상상력』, 『민족문화사연구』 68, 2018, 521-548쪽.
송경아,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 인용』, 여성사, 1994.
_____, 『통신 글쓰기의 여러 가지 모습』, 『오늘의 문예비평』 25호, 1997, 29-45쪽.
여성사연구모임 길밖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 윤영철,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1), 한국언론학회, 1998, 184-218쪽.
- 이승아, 『위기의 서사적 재현과 정치적 억압: 1996년 8월 한총련 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2, 161-194쪽.
- 이오성·박진희·박여신, 『한총련 막전막후 6박7일 밀착취재』, 『월간말』 181호, 2001, 114-121쪽.
- 이재원, 『時代遺憾, 1996년 그들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신세대, 서태지, X세대』, 『문화과학』 62, 2010, 92-112쪽.
- 장석준·조하연·홍일포, 『대학사회의 위기와 학생운동의 진로』, 『경제와사회』 33, 1997, 57-90쪽.
- 장훈교, 『199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저항폭력 연구: 한총련 민족해방 계열의 저항폭력』,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제프리 워스,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동진·채규형 옮김, 현실문화연구, 1997.
- 전재호·김원·김정환, 『91년 5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 정성일, 『연대항쟁 10년, 우리는 어디쯤 와있는가』, 『월간말』 243호, 2006, 30-35쪽.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정금나·김은정 옮김, 삼인, 2002.
- 편집부, 『여대생 성추행사건 진상조사를 보며』, 『한국여성신학』 28,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6, 70-71쪽.
- 허 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19(2), 한국근대문학회, 2018, 123-151쪽.

Abstract

Gender of the Square and Sexuality Politics of 'Revolution' -1996-2016, Revolutionary Records and Memories

So, Young-Hyun(Yonsei University)

How is the "Yonsei University Incident" of August 1996 remembered from a periphery perspective and a gender perspective? With this question in mind, I reviewed the history of the revolution and the missing memories in the period from 1996 to 2016 in Korean literature. I tried to recover the story of the revolution experienced and remembered by those who were politically invisible or gender-excluded, by centering on novels with strange reminiscences of the student movement in 1996, namely Yoon I-Hyung's "Big Wolf Blue" ("Big Wolf Blue", 2011), Choi Eun-Young's "Responsibility"(2018), Hwang Jung-Eun's *Didi's Umbrella* (2019) and Park Sang-Young's "A piece of Rockfish Sashimi The Taste of the Universe"(*How to Love in Metropolis*, 2019).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periphery and the name of the "unrememberable" revolution. And this fact tells us that revolution does not mean the same thing to everyone, even when it "passes" through the midst of a revolution that shares the imagination of a better society and the desire to reorganize the system. In other words, it emphasizes that the logic of exclusion and hierarchy was still in operation even at the moment of revolution. It would be said that this review is not only a rethinking of the student movement, but also a reevaluation from the gender perspective of Korean society in the 1990s.

(Keywords: August 1996', 'Yonsei university incident', revolution, sexuality politics, memories, records, gender, Yoon I-Hyeong, Choi Eun-young, Hwang Jung-Eun)

190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논문투고일 : 2020년 4월 17일

논문심사일 : 2020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20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0년 5월 13일